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또 다시 모시고 탄도로켓발사훈련을 진행하게 된 화성포병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들을 걸고들면서 함부로 입부리를 놀려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섬멸적인 핵불소나기를 들춰우고 승전포성을 높이 울릴 전투적의지에 충만되어있었다.

훈련에는 유사시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발사훈련은 실전배비한 성능개량된 탄도로켓의 비행안전성과 유도명중성을 비롯한 신뢰성을 재검열하고 화성포병부대들의 실전능력을 판정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발사장



에 도착하시어 탄도로켓발사훈련계획과 성능개량된 탄도로켓들의 전술기술적제원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전략군사령관에게 발사훈련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김락겸대장의 화력타격개시구령이 떨어지자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원

추격멸의 세찬 불줄기를 토하며 탄도로켓들이 련발적으로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자랑찬 비행운을 새기며 푸른 하늘을 가득 메웠다.

훈련에서는 화성포병부대의 로켓실전운영능력과 탄도로켓들의 전투적성

능이 완벽한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탄도로켓발사훈련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할수 있는 강력한 군종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군사적위력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탄도로켓련발발사훈련이 사소한 부족점도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전략군 화성포병들을 뜨겁게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퇴성으로 장엄한 서막을 열어제낀 력사적인 올해에 다계단으로 일어난 핵무력강화의 기적적성과들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주체적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군사적억제력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관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단행하였다.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핵시험장의 우리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어왔다.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로켓들에 장착할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하였다.

시험분석결과 폭발위력과 핵물질리용결수 등 측정값들이 계산값들과 일치하다는것이 확정되었으며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물질루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것이 확인되었다.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된으로써 우리는 여러가지 분렬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리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만큼 생산할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가게 되었다.

이번 핵탄두폭발시험은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 국가의 자위적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표시이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핵무력의 질량적강화조치는 계속될것이다.

주제105(2016)년 9월 9일
평양

제31차 전국과학기술축전 폐막

제31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폐막되었다.

축전에서는 나라의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고 원료와 연료를 국내 자원으로 보장하는 생산기술공정을 확립하며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570여건의 과학연구 및 기술혁신성과자료들이 발표되었다.

폐막식이 6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다.

폐막식에서는 종합심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다음세대통신망기술의 국산화를 실현할수 있게 한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통신산업연구소, 산소열법에 의한 주체철생산공정을 확립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아크

릴계철갑생산공정을 일떠세운 순천화학련합기업소, 난알짚미생물처리와 첨가제에 의한 배합먹이의 공업적생산방법을 연구도입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라선식비CT설비 등 새형의 기계설비들을 연구개발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 기계공업성 룬전기공업관리국이 특등을 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농업과학원 농업나노기술연구소, 평양곡산공장, 신의주탑공장 등 50여개 단위가 1등을 하였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우승컵, 메달, 증서,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본사기자

자주의 강국, 인민의 리상향



9월의 하늘가에 오각별 찬란한 람홍색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있다.

대륙에 억만자락을 뻗친 백두산과 같이,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세계에 앞서나가기라는 애국가의 울림과도 같이 장엄하고 활력에 넘친 공화국.

공화국의 근 70년 역사는 진리로 뭉쳐진 역센 힘으로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성새를 높이 쌓아올린 기적과 번영의 년대기, 승리와 영광의 년대기이다.

이 나날 공화국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거창한 창조와 눈부신 변혁의 력사를 자기의 청사에 아로새겨왔으며 오늘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전변을 창조하고 있다.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로 비약하는 오늘 전체 인민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역세계를 들어쥐고 위대한 조국번영의 력사적전환기를 마련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 있으며 존엄높은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민족자주위업을 완성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에서 살아보려던 우리 민족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시는 공화국의 창건자, 영원한 국가주석이다.

일찌기 10대의 시절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외세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 해주시였으며 해방된 이 땅에 자주로 존엄높고 인민이 주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주체37(1948)년 9월 9일 공화국의 창건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을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 주체의 나라로 솟아오르게 한 획기적인 사변이었으며 이 나라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었음을 세상에 알린 력사의 선언이었다.

은 나라 강산이 세찬 열기에 넘쳐 있던 그때의 격정과 환희에 대하여 당시 《로동신문》

은 이렇게 전하였다.

《김일성장군께서 수상으로 선임되신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것이다. ... 우리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 김일성장군께서 등단하시니 만장은 총기립하여 우렁찬 오랜 박수로 환영하였다. ... 김일성장군을 통일정부수반으로 받들려는 조선인민들의 속마음은 실현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공화국을 창건하신 그때로부터 이 나라 인민은 그이를 건국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였다.

창건된지 불과 2년도 안되는 청소년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타승하고 영웅의 나라로 자랑떨칠수 있는것도, 모든것이 파괴된 전후 재더미 위에서 불사신처럼 일떠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존엄떨칠수 있는것도 수령님의 투철한 자주사상과 비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

이다.

이 땅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인 동시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신 신념이고 의지였다.

일찌기 10대에 통남산마루에 오르시어 조선을 빛내일 원대한 맹세를 다지신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건국업적과 위업을 높이 받들어 공화국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1990년대 중엽 민족의 대국상과 흑심한 자연재해, 사면팔방에서 달려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봉쇄압살책동으로 나라가 그토록 어려웠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였다. 견인불발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인내력으로 그이께서 이어가신 선군 길에는 세찬 눈보라와 비바람, 령하 수습℃를 오르내리는 강추위도 있었고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는 위험천만한 최연연초소, 아찔한 낭떠러지로 야전차만 한 오성산의 칼벼랑길도 있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이 시련을 이겨내야만 조국을 지켜낼수 있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그 모든 사선의 고비들을 웃으며 넘으시였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그때의 어려웠던 시기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지금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 추억하고 있지만 고난의 행군을 하던 그때에 선군을 결심하고 나선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고, 자신께서는 그때 선군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굳게 가지고있었다고 교시하시였다.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피와 열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민헌신이 있어 공화국은 오늘 우주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게 되었으며 CNC를 핵으로 하는 새 세기 첨단공업화의 높은 경지,

경제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든든히 쌓아올릴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 해주신 공화국의 존엄과 영광, 민족의 통성과 번영을 천대만대로 빛내여주시는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나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봉에 올려세우자는것이 나의 결심입니다. ...

이것이 공화국의 력사와 미래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시던대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그이의 령도를 받으며 이 나라 인민들은 공화국을 제일로 사랑하시는분이 누구이신가를,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가꿔가시는 위대한 창조자가 어느분이신가를,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위력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정의 수호자가 과연 누구이신가를 실생활로 체험하고있다. 최근년간에 건설된 마식령스키장, 갈마식료공장,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평양강냉이가공공장, 평양과 원산, 남포, 강계, 함흥, 신의주를 비롯한 전국각지에 건설된 육아원, 애육원 그리고 미래과학자거리, 룡라인민유원지, 인민야외빙상장, 문수물놀이장, 과학기술전당,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수많은 창조물들은 그이의 애민정치의 의하여 인민의 리상과 꿈이 어떻게 마련되고 현실로 꽃피어가고 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유산이고 인민들이 생명처럼 간주하는 삶의 요람인 공화국의 푸른 하늘을 그 누구도 흐리지 못하게 하시려 선군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공화국을 수소탄을 보유한 자위의 핵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력을 떨쳐주시고 자위적국방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특대사변들을 뚫어안아오시어 군사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계시다.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싸베르 발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위력한 나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김정은각하를 진두에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두리에 천만군인이 굳게 뭉쳐있는 조선은 도발자들의 그 어떤 책동에도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추고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리는 강국이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과 온 겨레는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로 나라의 국호를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서 민족의 창창한 미래, 통일강국의 밝은 래일을 그려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토로, 자주통일의 대토로를 열며 질풍노도처가는 공화국의 앞길에는 끝없는 영광과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292호

주제 105(2016)년 8월 30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헌신한 성원들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을 높이 받들고 이 땅에 기여하여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친 다음의 성원들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한다.

김양건 리준성 김용관 정진환 리우갑 재창국
강관주 김류환 리종만 허흥식 정규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9.9절에 즈음하여 만마인사담화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만마동종의학과학원 구소 소장 린 툰이 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1948년 9월 9일 전체 조선인민의 리의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나라와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민족사적사변으로 된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는 강철의 의지와 특출한 령도로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로 전변시키시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시였다.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뜻깊은 9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조선인민의 앞길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기를 바란다. 본사기자

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에서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밝은 앞날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조국의 래일이 앞당겨질것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그이의 청년중시의 뜻과 청년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있는것은 전세대들의 전통을 이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체질화하고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는 애국충정의 발현이다. 청년들이 강하면 우리 당과 인민군대가 강하고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장자가 되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으로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 피끓는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의 로력적위훈이 깃들어있다. 더운 피 펄펄 끓는 청춘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기세높이 나아가야 강산이 들끓고 온 나라에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 청년들은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라는 구호를 들고 강국건설에서 청춘시절을 빛내고있다. 인민들이 바라고 조국이 부르는 곳에서 산도 떠움기고 바다도 메우는 무궁무진한 힘과 슬기와 용맹으로 힘차게 달리는 청년대군이 있어 부강조국의 휘황한 미래가 앞당겨지고있는것이다.

국사중의 국사로, 국가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는 모든 청년들을 민족자주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미래의 역군으로 육성하는 원동력이다.

공화국은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 청춘의 활력으로 비약하며 젊음으로 약동하고 번영하는 청춘의 나라이다.

본사기자 리 설

국사중의 국사

바람세찬 백두산을 찾으신고 청년들에게 백두의 넘과 기상을 심어주시며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되도록 하시고 조국방선의 초소들과 경제강국건설장들을 찾으시여서는 조국방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도록 걸음걸음 보살펴주시는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청년들은 창조와 건설의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있다.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녀성초음속전투비행사들이 태어나고 열혈의 남녀청년들이 조국수호의 길에서 청년시절을 보람있게 보내고

원수님의 슬하에서 인민군대는 무적의 강군으로 장성강화되고있는것이다.

새것을 지향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하자고 마음먹으면 보란듯이 해내는 불처럼 강렬한 열정과 슬기로운 지혜, 왕성한 투지와 용맹은 청년들의 특질이고 기상이다.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같이 나라의 이력 있는 곳마다에 준비하게 일떠서 창조물들마다에 청년들을 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우신들이 조국수호의 길에서 청년시절을 보람있게 보내고

공 화 국 기 삼 색 자 랑 가

경사로운 9월이 왔습니다. 조국의 품에 안겨 열여섯번째로 맞는 9월의 명절입니다.

우리들이 람홍색공화국기를 가슴에 품고 조국으로 돌아온 그때도 9월이었고 송환후 제일 먼저 맞이했던 명절도 공화국창건절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수십년세월 옥중에서 신념과 의지로 심장같이 간직했던 기발, 세기를 이어 승리와 영광, 강성과 존엄의 상징으로 힘있게 나뒤편기는 공화국기를 드높은 긍지와 한없이 숭엄한 마음안고 바라보며 위대한 강국에 드리는 송가를 서툰 필치로나마 엮어보고자 합니다.

* * *

국기는 국가의 상징이며 민족의 넋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자기의 온전한 국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망국의 비운이 드리워지던 19세기말 제 나라기발이 없었음을 창피스럽게 여긴 조선봉건왕조가 주변의 어느 나라로부터 형태와 무늬 등을 《하사》 받아 도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발마저도 일제의 식민지군 화발에 무참히 짓밟히고 왜놈의 일장기아래 참혹히 유린당하다 못해 겨레의 피로 얼룩져야 했습니다. 시일이야 방성대곡속에 나라는 사라지고 민족의 넋을 찾고자 백의동포들이 장농속에서 그 기발을 다시 꺼내들고 3.1의 만세도 웨쳐보고 화승총으로 맞서도 보았으나 모든것이 허사였습니다.

제 나라가 없으니 조선청년이 제 11차 베를린올림픽경기대회 마라손경기에서 우승했지만 일장기가 붙어있는 운동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야 했고 민족적울분을 금치 못한 언론인들이 그 사진에서 왜놈기발을 지워버렸지만 대신할 제 나라 기발이 없어 통탄하지 않다면 안티였던것이 바로 나라없고 삼가집 개만도 못한 우리 인민의 처지였습니다.

뺨아졌던 조국을 찾아주시여 겨레의 이 모든 통한을 풀어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두의 붉은 기발아래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칙령의 일장기를 같이 찢어버리시고 해방의 새 아침을 안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조국땅 안에 가장 위대한 인민의 새 나라를 세워주시고 숭고한 뜻이 어린 새 국가까지 마련해주셨습니다.

조국의 품에 안겨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면서 공화국창건을 선포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공화국기를 제양하시려는 력사적화복을 우러르면서 감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때 해설원이 국기의 제작도 증대한 건국위업의 하나라고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건국의 주추들을 쌓으신 날날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공화국창건준비로 바쁘신 속에서 새 나라의 국기를 완성하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고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국기제작에 고심하는 동안, 미술가들을 때없이 찾으시여 현지도의 날날에 무르익히신 구상을 설명해주시면서 국기에 담아야 할 사상적내용과 그 표현방도를 다 밝혀주시었다고 합니다. 일꾼들이 울린 국기도안을 보여주시며 붉은색, 흰색, 푸른색의 비율이 합리적이 못하다고, 공화국기의 중간부분은 붉은색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위와 아래부분은 흰색과 푸른색이 각각 대칭되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흰색과 푸른색의 폭을 지금보다 가늘게 하면서도 잘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국기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도 잘 맞추고 흰 동그라미의 위치도 지금처럼 중심에 놓지 말고 기발대쪽으로 가져가는것이 좋겠다고, 흰 동그라미안에 백두산과 해를 그린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오

각별을 그려넣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었다고 합니다.

국기도안창작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방향뿐아니라 국기의 삼색이 상징하는 뜻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기는 이처럼 자랑스럽고 훌륭한 국기로 완성될수 있었던것입니다.

우리 공화국기는 바라볼수록 참으로 멋있습니다.

기발의 가운데에는 넓은 폭에 붉은색, 그 아래우에는 가는 폭에 흰색, 그 다음에 좀더 넓은 폭에 푸른색,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안에는 붉은 오각별...

정말 구성요소면에서 나무랄데가 없습니다. 형태도 보기 좋고 색깔들의 조화도 완벽합니다.

우리 공화국기의 삼색에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의 국기도 담을수 없는 한없이 숭고하고 깊은 뜻이 깃들어있어 더욱 존엄높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공화국기는 참으로 멋있다고 하시면서 공화국기는 항일혁명선열들과 전우들의 붉은피가 물들어있어 붉고 당을 만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옥같은 충정이 깃들어있어 회하며 우리의 위대한 꿈과 포부가 비껴있어 푸르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공화국기는 붉은 기발입니다.

원래 붉은색은 열정적인 투쟁과 혁명가의 강인한 신념과 의지, 굳센 지조의 상징으로 되어왔습니다.

청년장군 김일성동지를 따라 20성상의 항일대전의 총성이 울리던 백두산에 휘날리며 혈전만리를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고귀한 선혈이 물들어 붉은 공화국기입니다.

그 기발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넣는 신화를 창조하는 싸움에 피와 목숨을 바친 성스런 50년대의 승리자들의 위훈으로 하여 더욱 붉어졌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전대미문의 역경을 헤쳐야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에서 《높이 들자 붉은기》의 노래소리와 더불어 신념의 기발로 더 높이 휘날린 우리의 공화국기였습니다.

너무도 애석하게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피눈물이 흐르는 이 땅을 향하여 적대세력들은 때를 만난듯 공공연히 북침야망의 이발을 드러내고 《북핵》소동과 인권모략책동 등 온갖 비렬한 공세를 다 들이대며 덤벼들었습니다.

서방의 일부 언론들은 《이번에는 진짜다, 2~3년안에 북이 무너질것이다. 적색공화국은 더 이상 없을것이다.》고 하면서 《조기붕괴설》을 공공연히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망상이었습니다. 유럽의 한 언론이 공화국의 지난 5년을 두고 이런 평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없어질것이라던 적색기가 더 붉어져 누리에 더 광범히 퍼져가고있다. 그 붉음의 전파를 막을 힘은 이제 더 이상 없을것임이 확실시되고있다.》

붉은기의 수호자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진두에 서계셨습니다.

그이께서는 그 누구보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안으시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공화국기를 당기와 함께 높이 추켜드시고 력사의 돌풍을 맞받아나가시었습니다.

그 기발아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따라 폭풍쳐나아가고 최후승리의 명마루는 눈앞에 다가오고있습니다.

력사는 붉은기가 내리워지면 국기도 변한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주의를 버린 나라들에서 국기

비 전 향 장 기 수 홍 명 기

와 국장이 달라진 비극적인 모습을 위대한 우리 조국의 현실과 대비하여보면서 절감하게 되는 진리, 그것은 바로 붉은기가 변하지 말아야 국기도 변함없이 수호되며 필필 휘날린다는것입니다.

공화국기는 우리 인민의 백옥같은 충정이 깃들어있어 그 하얀 색깔이 눈부십니다.

예로부터 순결하고 강직하며 아름다움을 지닌 우리 겨레는 흰색을 사랑해왔습니다.

단군을 시조로 한 우리 민족은 흰색을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색으로 여겼고 일년사계절 항상 깨끗한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래서 백의민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3.1인민봉기때에는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항거하여 나섰다가 폭압의 칼에 맞아 그 흰옷을 선혈로 물들이기도 하였습다.

우리 민족의 순결함은 오늘 백옥처럼 희고 번짐이 없는 충정심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소식을 담은 기록영화들이 방영될 때마다 세상사람들모두를 충격에 휩싸이게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장제도와 무도, 머나먼 섬초소까지 자그마한 목선을 타고 찾아오시였다 떠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정녕 떨어져질수 없어 모두가 바다에 뛰어들어 만리대양이라도 헤엄쳐갈듯 그이를 따라서는 병사들과 군인가족들의 모습, 《아버지원수님—》하고 그이 품에 안기는 만경대혁명학원이며 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 친아버지에게 아리듯 키돋움하며 원수님께 귀속말로 속삭이는 모습, 발을 동동 구르며 원수님 만세를 부르고 어푸러질듯 달려가 저저마다 결에 서겠다고 서로 밀고 당기는 모습, 이것은 오직 내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감동의 화폭입니다.

그 무엇이든 정도자가 한번 호소하면 전민전군이 산악같이 떨쳐나 《조선속도》창조의 거세찬 불길로 화답하고 당이 새로운 구상을 펼치면 만리마를 타고 내달려 눈부신 현실로 펼쳐가는 충정의 마음 또한 얼마나 순결합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조국을 만드는 길이라면 나아린 처녀가 어머니로 되어 부모없는 아이들을 수많은 데려다 키워주고 불구가 된 몸으로도 불사신같이 일어나 수십년세월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안해가셨던 막장을 남편이 대신 지켜가면서 피와 땀을 주저없이 바치는 우리 인민의 이 깨끗한 마음은 정녕 력사가 처음 보는 순결의 극치, 아름다움의 절정입니다.

정도자를 친어버리로 모시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마음과 발걸음을 함께 하며 그 길에서 오고가는 뜨거운 혈연의 정, 이것이 우리 공화국의 최강의 힘인 일심단결이고 불패성의 원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심으로 우러르고 심장으로 따르는 그 충정과 더불어 공화국기는 천만년세월속에서도 백옥같은 흰빛을 영원히 잃지 않을것입니다.

공화국기의 푸른 색은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이 물들어 그리도 푸릅니다. 강국의 하늘만이 언제나 푸를수 있습니다.

약소국의 하늘에는 전쟁의 검은 구름이 상시적으로 배회하고 그 검은 하늘밑에서는 인민들의 피가 흐르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울리기 마련입니다.

선군의 총대로 칙령의 불구름을 영원히 쳐볼안건 조선의 푸른 하늘을 비껴담고 우리의 국기가 세계의 한복판에 필필 휘날립니다.

올해 정초 전세계를 짝짝 놀래운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소식과

2월의 하늘가에 황홀한 비행운을 새긴 주제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소식에 접하였을 때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가슴 설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뇌리속에는 1990년대중반 남조선의 《안기부》요원들이 우리앞에 나타나 하던 말이 다시 금 생각났습니다.

그자들은 북에서도 공화국기가 내리워질 날이 멀지 않았으니 마음을 고쳐먹으라는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석에서 그자들의 꾀변을 단호히 반박하였지만 마음속 한구석에 스며드는 불안과 위구를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당시 남쪽의 출판물들에는 전대미문의 시련앞에 과연 공화국이 존재하게 되겠는가 하는 억측들이 어지럽게 나돌고있었던것입니다.

그런데 얼마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화국이 첫 인공지구위성을 쏘출린 소식이 신문과 TV를 가득 채웠던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장엄한 선들로 온 우주를 진감하며 솟구쳐오른 《광명성—1》호의 운반로켓드통체에 뚜렷이 새겨진 람홍색 공화국기였습니다.

내리워진다면 공화국기가 우주를 향해 치솟는것을 본 우리들은 속으로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남몰래 걱정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도따라 수소탄을 보유한 동방의 핵대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이 된 내 조국의 모습이며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0》의 시험발사, 전략잠수함 탄도탄중성 시험발사성공 등 주제조선의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는 장쾌한 현실을 매일 같이 접하면서 감동과 흥분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율, 쓰디쓴 참패를 전쟁을 통하여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할것이라는 우리 군대의 서리받치는 경고를 들을 때에는 당장 전장에라도 달려나갈 생각이 들어 높은 몸에도 힘이 부쩍부쩍 솟군 합니다.

정말 이제의 우리 공화국이 미국도 두려워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천하무적의 강함으로 위용떨치는 공화국의 모습은 지난 세기 우리 겨레가 당한 을사망국의 한도 가져주고 장장 71년동안이나 미국의 사슬에 매여 식민지노예민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한도 풀어줍니다.

우리 공화국이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치는 모습도 공화국기의 푸르창창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백두전주를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발휘되는 청년들의 그 영웅적장거를 보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 9차대회를 보면서도 그 철리를 다시금 새기었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강국의 무궁함을 확신하였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으로 만장약되고 청춘의 피와 땀으로 조국을 받들어가는 청년들이 대군을 이룬 청년강국으로 일떠선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의 강대함이 있고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승리와 창창한 미래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오각별 빛나는 공화국기를 바라볼수록 푸르른 창풍에는 우리 국기 무궁도록 나뉠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 확신을 받아안게 됩니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피를 물고 덤벼들고있어도 끄떡없이 자력자강으로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을 건설하며 유족하고 문명하게 살려는 인민

들의 꿈을 다 성취시켜주는 우리 공화국입니다.

1년을 10년맞잡이로 달리는 만리마속도속에 새로운 번영의 문이 열리고 세계적인 창조물들이 련속 일떠서는 내 조국,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각지에 건설된 옥아원, 애육원들, 평양양로원, 관란한 배일을 예고하며 일떠서는 려명거리, 산업시설과 식료공업의 본보기들을 비롯하여 행복과 문명, 번영의 원대한 구상과 대담한 목표들이 하나하나 점령되고있는 우리 조국입니다.

10년도, 20년도 아니고 불과 4~5년동안에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그림같이 황홀한 땅과 바다에 눈부신 자재로 드러나고 열매로 주렁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천명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함 목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들이 실현될 때 만리마를 탄 우리 조국은 세계를 디디고 더욱 솟구쳐오르게 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앞길은 보다 휘황찬란해질것입니다.

남조선의 한 북문제전문가가 《북에서 일어나는 변혁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극도의 어려움속에 있다.) 고 하는 온갖 악선전이 물거품처럼 변하고 북을 어떻게 하나 와해시키려던 모든 망상이 통쾌하게 깨어 저버리고있음에 대한 론중이다. 승승장구하고 무궁창창한 북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는데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 찬란한 해와 별 비쳐 밝아오는 우리 조국의 앞날, 무궁번영할 우리 민족의 휘황찬 미래가 다 비껴있는 공화국기야말로 위대한 조국의 가장 빛나는 상징입니다.

남조선에도 무엇을 상징하는 기발이라는것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대의 잔재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애당초 외세의 식민지에 무슨 상징이라는것 자체가 있을수 없습니다.

사대로 멩들고 허무로 찌들어가는 남조선이다보니 친미친일의 매국노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무슨 《전시작전지휘권》이라는것마저 영원히 물려받지 않겠다고 양양질을 하고 민족을 멸살시킬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적인 전쟁장비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싸드》까지 배치하려는 온갖 망동질을 다 해대고있습니다. 지어는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한 일본놈들과 《화해》니, 《치유》니 하며 손을 잡고 민족의 얼을 팔아먹으며 온갖 수치고 망신을 다 당하고있습니다.

과연 북과 남중에서 그 어디가 민족의 진정한 넋이 살아 숨쉬고 조선민족의 정통성이 맥맥히 이어져 흐르는 곳인가 하는것을 우리 공화국기의 퍼덕임소리가 다 말해주고있습니다.

자주와 존엄으로 빛나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삼색기가 창공높이 휘날리는 우리 공화국기야말로 8천만겨레의 참다운 조국입니다.

우리의 공화국기야말로 천하철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가장 위대한 조국의 상징이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며 원대한 포부와 리상과 념원실현의 표대입니다.

절세위인을 대를 이어 모시여 공화국기는 자기의 삼색을 더 선명히 하며 무궁토록 나뉠길것이며 그 필력임소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은 세세년년 통일과 번영의 만복을 누리게 될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은덕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수십년세월 감옥에서 공화국기를 지켜낸것처럼 영원히 어머니 우리 조국, 공화국을 위해 여생을 깡그리 바쳐나가겠습니다.

장시

조선은 나 아 간 다

김태룡

격동의 시대, 벽찬 회열의 시대
누구나 가슴가슴마다에
끓는 용암마냥 신념의 불을 품은 시대
김정은시대의 노도치는 폭풍안고
조선은 나아간다

홀려온 력사의 그 어떤 도전도
멈춰세울수 없었던 조선의 진군
오늘도 뜻높이 세운 리상과 꿈을 향해
세계의 한복판을 꿰뚫으며
질풍처럼 나아가는 그 기상 장하노니

아, 그래서 더 긍지높이 우러르는
람홍색공화국기발이어
9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나뭇기는
그 세찬 퍼덕임소리에서 우리 듣노라
영원한 조선의 진군가를

× ×

인간세계의 각양각색 음향을 싣고
소란스레 굴러가는 행성의 자전이어
잠시 멈추라
세계가 놀라고 적대세력이 기절초풍한
조선의 8월 그 새벽의 폭음 다시 울려다오

아직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검푸른 바다를 뚫고 솟구친
빛, 눈부신 광채
불줄기를 내쏘며 폭음을 울리며
대풍으로 날아오른 《북극성》탄도탄

고요한 대기를 들었다놓으며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성공
장쾌히 선언한 아, 그 퇴성은
승리와 정의를 선도하는 조선의 목소리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는
조선의 힘찬 진군의 발걸음소리

탄도탄이 새겨가는 비행운
벽차오르는 격정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그리도 환하게 웃으신 장군
우리 원수님 심중에
세차게 끓어번진것 무엇인지
사람들이여, 그이 터놓지 않으신들 모르랴

아무리 공갈과 제재의 고삐 조여대도
무모한 핵광기를 부러대도
조선은 갈길은 간다
절대로 주춤도 서슴도 없으리라
그이 마음속에 고쳐친 신념의 선언
탄도탄의 퇴성으로 터쳐오르지 않았더냐

이 나라가 굴함없이 나아가는
불굴의 직선주로마냥
곧바로 내뻗치던 탄도탄의 은백색 불줄기
은 나라가 눈물로 바라보며

생각깊은 마음에 떠오른것은 무엇이었던가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보천보의 불길로 드높이 선언하시고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 하시며
정의의 보검으로
침략전쟁의 검은구름 쳐물아내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그 영상

저 멀리 홀려간 력사에서만 찾으랴
오, 그 불은
기나긴 혁명의 려정우에서
수령님 추켜드신 자주의 불이었고
장군님 지퍼주신 선군의 불이었다
오늘도 꺼지지 않는 강국의 역센 활화산!

보았느냐
한사코 우리가 잘살고 잘되기를
기를 쓰고 원치않는 흉악한 무리들이
제재와 압살의 난파도속에서
보란듯이 솟구쳐오른 탄도탄의 불줄기

얼마나 얼마나 달라졌는가
자기를 지킬 힘이 없고 총 한자루 없어
렬강의 문을 애처로이 두드리던 민족이
아, 오늘은 그 손에
천하무적 막강한 힘 틀어쥐었거니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도
전략탄도로켓트의 장한 실체도
다른 나라의 령도가 아닌
바로 자기 땅에서 듣고 보노라
자기 손탁에 무적의 병기로 틀어쥐었노라

군사강국, 대국이라 으시대는 나라들이
독점의 울바자를 두른 핵의 세계
그 바자를 부셔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조선
만고의 숙원을 이루었다 부국강병!

부부는 자부, 호못한 긍지로
밤잠마저 잇는다는 이 나라 인민들
특대사변 날이 커가는 힘의 위력앞에
저도 몰래 눈굽 손등으로 찍으며
가슴속 할 말도 미처 다 터놓지 못하노니

아, 이렇게 조선은 나아간다
눈서리에 파묻혀도 양춘을 굳게 믿어
푸르려 설레이는 남산의 소나무 그 기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 령도따라
조선은 승리의 진군이 더 높이 부른다

그이는 우리의 슬기와 지혜
그이는 우리의 용감성과 강대성의 상징
지니신 출현함으로 풍파를 휘여잡고
거룩한 기상으로 정의의 조라 틀어쥐신
아, 김정은원수님

한번 뵈오면 신심 용솟음치는
그이의 정깊은 미소
하시느 말씀 구절구절 새겨안으면
앞이 트이고 배짱으로 그들먹해지는
우리의 넓은 가슴가슴이 아니더냐

우리 보지 않았더냐
더욱 시퍼런 제재의 칼을 빼여든
원썬놈들 보란듯이
려명거리건설의 휘황한 설제도 펼치신
그이 백승의 담력과 기상을
그이 우러러 천만군민 환호 터쳤고
세계가 경탄하지 않았더냐

올해의 고생길은 내가 다 걷고
인민들에게는 그 고생길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한다 하시며
천만헌신 심혈 다해 열어가신 그 길에
아, 보이는것은 그이 로고와 바꾼
승리의 기발 인민행복의 별천지

조선이 나아가는 길
더 넓게 더 창창하게 더 굳건하게
번영의 대통령로 열어주시는 원수님
그 길을 활개치며 인민이 걷는다
조선의 광활한 미래가 기운차게 내달린다

하늘엔 우리가 만든 위성이 날고
땅우엔 우리가 가꾼 만복의 열매
알알이 주렁졌어라
만리마의 기상으로 솟구쳐오른
이 땅의 눈부신 기적의 재부들은
마중오는 새 삶의 환희 부풀도록 새겨주거니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는 경탄은
이미 오래전의것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새 전변앞에서
세계는 보고있다
조선의 신화, 김정은신화를

그렇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의 성공!
천지를 뒤흔들며
화성포병부대들이 저 하늘을 진감시킨
탄도로켓트발사의 장쾌한 폭음!
...

어찌 그뿐이랴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려명거리...
그것은 원썬을 이긴 우리의 승전소식
우리의 승리를 말해주는 전승의 증견자

생활의 랑만과 회열이 높뛰는
이 나라의 노래는 또 얼마나 아름다우나
보다 아름다울 때일을 그리는
꿈은 그지없이 황홀하고

속삭이는 리상은 별과 같이 빛나노라
...
구름우엔 참매 날고
목판뫼 된 이 강산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
부러움 없어라 아침의 나라

오, 자기를 지킬 힘도 최강
자기를 빛내일 힘도 최강으로 갓춘 조선
허나 아직도 있어라
무진막강 조선의 힘을 두고 시골벽적하는
리성의 눈이 먼 시대의 착오자들이

제재와 압살의 국제공조
목뿔아 꿰쳐대는 《북인권》궤변
병진을 하면 민생이 주저앉는다
이룰수 없는 꿈이라
낱아빠진 타령으로 부산을 떨어댄다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강대성앞에
그것은 마지막숨 몰아쉬는
가련한 약자들의 비명소리일뿐
폭풍처럼 나아가는 조선의 힘찬 발걸음에
채워 나뉘는 패배자의 호곡일뿐

아무리 쏘라닥질 해바라
모락나발의 비린청 돋구어봐라
조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력사의 공식으로 불변화된 진리
승자와 패자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어제는 저 길 오늘은 이 길
남의 손을 잡고 가는 길
남의 뒤를 따라 가는 길
천태만상 세상에 뒤엉킨 그 길은
우리와 결코 인연이 없나니

강국의 존엄 승리의 기치
찬란한 태양이신 김정은원수님
그이께 기꺼이 운명을 맡기고
다가올 미래의 천년세월을 맡기고
그이 따라 영원히 승리의 길만을 가리라

곧바로! 끝까지!
초강도 초고압의 돌진력으로
력사의 오물들 가차없이 쓸어버리며
김정은원수님 높이 모시고
강국의 리상을 향해 조선은 나아간다
공화국기발 휘날리며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의 앞길엔 영광만이 있어라

오, 비약과 번영의 나래
만리대공에 내뻗치고 내달리는 조선
우리를수록 자랑스러운
람홍색공화국기 더 밝게 비쳐주며
태양은 태양은 끝없이 눈부시다

주제89(2000)년 6월 력사적
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됨
으로써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전
환적국면이 열렸으며 북남사
이에는 화해와 협력, 교류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해 8월에는 남조
선의 주요신분, 방송회사 사장
들로 무어진 대규모의 언론사
대표단이 공화국의 초청에 의
하여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방문기간 성대한 환영연회
장에서 손을 맞잡은 북과 남
의 언론인들은 화기에애한 동
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자리
를 같이하고 흥금을 터놓으
면서 일일천추로 통일을 바라
는 7천만겨레의 기대에 보답
할 마음들을 가다듬었으며 8월
11일에는 평양에서 민족의 단
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이룩하
는데 도움이 되는 언론활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을 기본내용
으로 하는 북남언론기관들의
력사적인 공동합의문을 발표
하였다.
8월 12일 평양을 방문한 남
조선언론사대표단성원들은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넓
으신 포용력을 지니신 민족의

래양, 조국통일의 구성이
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직
접 만나뵈고 가르침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
선언론사대표단과 3시간이상
이나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
의 무렵없는 질문까지 다 받아
주시며 특출한 정치실력과 풍
부한 상식, 재치있는 유모아로
의 말씀전문을 약속이나 한듯
이 일제히 실었다.
남조선에 돌아간 남측언론인
들은 반북대결론조를 버리고
저저마다 《북바로알기》바람
을 일으켰으며 보수언론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중앙
일보》, 《동아일보》까지도
이러한 사회적분위기에 편승
하여 북남협력사업에 나서기
도 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위대 한
장군님께서 그해 한가위를 맞
으며 보내주신 칠보산송이버섯
이 남측대표단성원들에게 전달
되었을 때는 《맛있다, 칠보산
송이버섯》 등의 제목으로 송
이버섯에 깃든 뜨거운 사연을
대서특필하였다.
특히 남조선의 중앙일보사
사장은 남조선으로 돌아가자
마자 방문기간 본인마져 잊고
있던 생일까지 헤아려 축하연
을 베풀어주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동포애적사랑
이 깃든 사연을 출판물에 실어

은 세상에 전하였다.
정녕 이것은 우리 민족끼리
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북남
공동선언이 낳은 빛나는 결실
이었다.
그러나 가슴아프게도 북남언
론기관들사이의 합의에 배치되
게 남조선의 일부 언론들은 보
수당국에 아부굴종하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이 아니라 북남사
년을 비롯한 기자, 방송원년들
들을 내세워 《북이 주민들에
게 〈충성기부〉를 강요하고있
다.》느니, 《충성심을 자대로
평양양로원의 입소대상자들을
선정한다.》느니 튀니 하며 있
지도 않는 《고위장령의 〈망
명〉설》과 같은 반공화국모략
악담질을 악질적으로 해댔다.
지금 남조선에서 박근혜보수
론들이 박근혜를 너왕처럼 대
접해주고있다.》, 《〈KBS〉와
〈MBC〉가 당국에 의해 마음
대로 조종되고있다.》, 《유선
종합방송은 〈정부〉의 어용방
송이다.》라고 비난하면서 보
수언론배척운동에 나서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보수당국에 맹
목적으로 추종하여 진실을 외
곡하고 동족대결의 앞잡이노릇
을 한 보수언론이 받는 응당한
대접이다.
통일의 아침을 앞당기기 위
해서는 사회여론의 대변자인
북과 남의 언론인들이 언론인
이기 전에 민족을 사랑하는 애
국자여야 하며 북남언론인들의
애국활동은 마땅히 6.15공동선
언을 리행하는테로 지향되어
야 한다.
민족을 위하는 통일북대가
되는 여기에 언론의 참된 사명
도, 가치도 있다.
둘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된
다는 자명한 리치를 망각하고
쓸데없는 동족대결악담질만 늘
어놓는 남조선보수언론들에게
차례질것은 겨레의 비난과 외
면뿐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북대는 통일북대가 되어야 한다

이의 대결을 조장하는데 앞장
서고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청와
대 홍보수석비서관과 방송통신
위원회를 비롯한 언론담당기관
들과 《KBS》, 《MBC》 등
주요방송, 통신사들의 사장,
국장들을 악질보수분자로 교
체하는 한편 어용언론에는 특
혜를 주고 진보적인 언론은 가
차없이 탄압해나서고있다.
진보적인 인터넷신문이었던
《자주민보》를 강제폐간
시킨 남조선보수당국은 지난
해에만 보더라도 《채널 A》
와 《MBC》의 강은하, 김소영

당국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
소리가 높아지면서 보수언론들
에 대한 인기도 떨어지고있으
며 반면에 진보언론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박근혜집권후 지난 3년동안
진행된 여론조사들에서는 신
뢰를 받고 열독하는 언론순위
에서 민족의 화해와 민주개혁
을 주장하는 《한겨레》가 련
속 1위, 《경향신문》이 6위
권안에 들었으며 여론을 독점
해온 보수적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뒤꼬리로
밀려났다.
남조선사회 각계는 《보수언

론들이 박근혜를 너왕처럼 대
접해주고있다.》, 《〈KBS〉와
〈MBC〉가 당국에 의해 마음
대로 조종되고있다.》, 《유선
종합방송은 〈정부〉의 어용방
송이다.》라고 비난하면서 보
수언론배척운동에 나서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보수당국에 맹
목적으로 추종하여 진실을 외
곡하고 동족대결의 앞잡이노릇
을 한 보수언론이 받는 응당한
대접이다.
통일의 아침을 앞당기기 위
해서는 사회여론의 대변자인
북과 남의 언론인들이 언론인
이기 전에 민족을 사랑하는 애
국자여야 하며 북남언론인들의
애국활동은 마땅히 6.15공동선
언을 리행하는테로 지향되어
야 한다.
민족을 위하는 통일북대가
되는 여기에 언론의 참된 사명
도, 가치도 있다.
둘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된
다는 자명한 리치를 망각하고
쓸데없는 동족대결악담질만 늘
어놓는 남조선보수언론들에게
차례질것은 겨레의 비난과 외
면뿐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청춘의 피끓는 심장을 다 바쳐 조국통일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

해내외 전체 조선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청년들!

민족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인 우리 청년들을 통일조국건설의 선봉에 불러주는 열화같은 호소가 피끓는 젊은 심장들을 불태워주고 있다.

세계가 우러르는 회세의 위인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선청년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확히 밝혀주시며 천명하신 조국통일투쟁과업은 우리 청년들이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분렬의 고통을 끝장내고 이 땅위에 존엄 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애국성전의 맨 앞장에서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 지침이다.

70여년이나 이 땅에 틀고앉아있는 저주로운 분렬의 장벽을 청춘의 슬기와 용맹, 담력으로 과감히 짓부셔 버리고 우리 청년들을 온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통일조국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로 내세우시려는 것이 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백두령장의 애국애족의 호소에 화답하여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기어이 열어나가는 불타는 일념으로부터 해내외 전체 조선청년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우리 높뛰는 가슴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자.

통일과 청춘, 조국통일의 청년전위!

이보다 더 고귀한 부름, 더 영예로운 칭호가 어디에 있으며 이처럼 값높은 청춘의 주소를 또 어디에서 찾을수 있겠는가.

돌아보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판가름되던 준엄한 격전의 전구들에, 역사의 폭풍우를 맞받아 뚝고나가며 승리와 전진을 아로새겨온 영광의 년대기마다에 별처럼 빛나는 청춘의 자랑스러운 이름들.

위대한 한별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며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아온 혁명의 첫 세대들도 열혈의 청년들이었고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으며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한 주인공들도 다름아닌 조선청년들이었다.

전후 재더미만 남은 이 땅위에 사회주의락일을 일떠세우고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는 치렬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어머니조국을 받들고 빛내여온 용사들도 우리 청년들이었다.

망국에서 분렬로 이어진 민족수난의 상처를 가지고 통일독립된 새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해 청춘도 사랑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온 유명무명의 아들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의 거레는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세의 압제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사수하며 후손만대의 통일번영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땅을 영원히 물로 갈라놓고 지배와 예속, 대결과 전쟁을 강요하며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미국은 우리 공화국이 자주적 핵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갈수록, 조국통일의 최후승리가 가까와질수록 승냥이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더욱 발광하고 있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우리의 자위적군력강화를 당치않게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고 겹고들며 온 남남평을 복잡을 위한 위협천만한 핵전쟁마당으로 만들고 수많은 남조선청년들을 총알비리로 내몰고

있다.

이 시각도 군사분계선전역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도발의 총성은 임의의 시각에 터질 침략전쟁에 대한 명백한 예고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자주냐 예속이냐, 애국이냐 매국이냐, 삶이냐 죽음이냐를 가르는 판가리결사전으로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이야말로 민족앞에 충직하고 정의에 불타며 시련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조국통일대업성취의 결승레프를 끊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총매진해야 할 때이다.

해방과 전승의 환희를 안아온 전세대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바통을 이어받아 북남삼천리에 조국통일의 축포성을 터쳐올려야 할 중대한 사명이 다름아닌 우리 청년들의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

해내외 전체 조선청년들이여!

《통일청년강국의 광활한 레일을 향하여 조선청년을 앞으로!》, 이 투쟁구호를 높이 들고 나라와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해 나가자!

1. 백두의 전출명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국통일의 향도성으로, 조선청년운동의 위대한 령도자로 더욱 높이 받들 어모시자!

령도자를 잘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도 지킬수 있고 겨레의 운명과 안녕도 담보된다는것은 우리 청년들이 피로써 찾은 불변의 진리이다.

그 간고성과 장기성, 복잡성과 첨예성에 있어서 류례없는 조국통일투쟁을 최후의 승리로 향도해 주실분은 오직 우리 청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한분뿐 이시다.

영명하신 그이를 통일조국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는 여기에 통일의 대문을 하루속히 열어제끼고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만방에 떨치는 길이 있으며 우리 조선청년들의 밝고 창창한 레일도 있다.

절세위인께서 앞장서 이끌어가시는 통일강국건설위업의 전위가 되어 그이와 발걸음을 맞추어나갈수 있다 는 것처럼 크나큰 영광과 행운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갈 장엄한 진군길에서 해내외 전체 조선청년들은 위대한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별무리가 되고 태양을 응위하는 위성이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조국통일사상과 령도를 우리 청년들이 성심을 다해 앞장서 받들자!

절세위인의 심장에 높뛰는 뜨거운 열정과 무한대한 활력을 우리 청년들모두의 피와 땀으로 받아안고 용솨음치는 힘으로 노도도 내밀며 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어제끼자!

2.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청춘의 뜻과 마음을 합쳐 조국통일의 대통령을 열어나가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이다.

모든 조선청년들이 민족자주의식의 투철한 체현자, 드림없는 실천가가 되자!

민족자주에 우리 조선청년들의 정의와 자존심, 슬기로운 기개가 있다.

오늘 피로써 다져온 무진막강한 정치군사적위력은 동방의 작은 나라였던 우리 조국을 세계최정상에 올려놓았으며 우리 민족, 우

리 청년들의 운명에는 일대 전환기가 열리고 있다.

조선청년이라면 용당 자주적인 강대국의 일원이라는 새로운 관점과 자세에서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대하고 세상을 딛고 내려다보는 담력과 배짱이 있어야 한다.

민족자주를 통일과 번영의 생명선으로 들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자!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필사적으로 가로막고있는 외세의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끝장내자!

우리 민족에게는 미국을 내려다보며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과 어깨 나란히 살아갈 권리와 자격이 있다.

누구는 지배하고 누구는 지배당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남조선에서 미국이 강요하는 숭미와 사대의 죄사슬을 청년들이 앞장서서 과감히 끊어버리자!

친미굴종외식에 완전히 증독되어 외세에 민족의 리익과 존엄을 섬겨바치는 사대매국역적들을 정의롭고 존엄높은 조선청년들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하라!

민족대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자!

단결된 청년들의 힘은 핵폭탄보다 더 위력하며 단결로 전진하는 청년들의 투쟁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어디에서 살고 무슨 일을 하든 분렬민족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사는 청년들이라면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의 길에서 일치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들의 가슴속에서부터 치욕의 분계선을 들어내고 북과 남, 해외가 따로없는 조선청년으로 서로 만나 통일애국의 고귀한 뜻과 순결한 혈육의 정을 합쳐나가자!

조국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청년들의 3자련대기구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를 중심으로 모든 청년들이 굳게 뭉쳐 련대연합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자!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조국통일의 민족사적대업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투쟁, 련대활동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자!

3. 우리 청년들이 조국통일3대현장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앞장서 열자!

조국통일3대현장과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은 온 겨레가 한결같이 지지찬동하는 조국통일의 표대이며 실천강령이다.

천갈래만갈래 길은 많고 통일을 표방하는 온갖 《방안》이 있을수 있어도 우리 겨레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통일할수 있는 길은 오직 조국통일3대현장이 밝히고 북과 남이 공동선언을 통해 민족앞에 확약한 이 하나의 길뿐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세력들은 전세대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장구한 투쟁과정에 이룩한 사상과 전통, 성과와 경험이 새세대들에게 계승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보수패당의 의해 감행되고있는 북남선언들에 대한 훼방과 반공화국대결망동은 그 집중적 발로이다.

하지만 세대를 이으며 전진하는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옹바른 전통과 계승을 떠나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체 조선청년들이여, 그대들이

진정 이 땅의 자주통일을 바란다면 불멸의 통일대강들을 정의와 진리, 애국과 통일의 교과서로 풀어안고 지워지지 않는 글밭로 심장에 아로 새기자!

청년들이 앞장서야 시대가 전진하고 온 겨레가 따라선다.

청년들이 선봉에 서서 조국통일3대현장과 북남선언들을 조국통일 실천에 구현해나가자!

《가자 백두산으로, 오라 한나산으로, 만나자 통일의 광장에서!》를 웨치며 혈육의 정과 뜻을 나누던 그 시대가 돌아올수 없는 과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화해와 단합을 향한 제2의 6.15열풍, 평화번영의 10.4열풍으로 대결과 적대의 광풍을 몰아내자!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통일의 앞길을 집요하게 가로막는 박근혜패당에게 철추를 내리며 청년들의 굴하지 않는 기개와 통일열기를 과시하자!

정의에 과감하며 불의를 용납치 않는 기개와 열정으로 다시한번 대결의 동도대에 《통일의 꽃》을 피우고 적대의 장벽위에 《통일의 불새》들이 날아오르게 하자!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청년들은 백두의 맑은 정기로 혼신을 가다듬고 불타는 청춘, 피끓는 심장을 바쳐 통일애국운동에 헌신하며 그로써 첫 통일세대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아로새기자!

4. 민족의 머리위에 핵침화를 들썩우려는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침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회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오늘 조선반도는 항성적인 핵전쟁구름이 배회하는 가장 위험천만한 열점지역으로 공인되고있으며 그 최대피해자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 우리 겨레, 우리 청년들이다.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핵침화를 들썩워서라도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미국과 겨레의 생명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세의 전쟁책동에 무분별하게 동조해나서고있는 괴뢰군부호전광들은 남조선청년들 바로 당신들을 북침핵전쟁의 돌격대로 썩먹으려 하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고 앞날의 푸른 꿈과 희망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삶과 배움의 터전이 또다시 황폐화되고 온 겨레가 핵전쟁의 희생물로 되는것을 어찌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더우기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한강토에 태를 묻고 자란 북과 남의 청춘들끼리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는 비극적인 사태를 피할수 없게 된다.

우리는 미제가 침략전쟁을 도발하면 추후도 용납치 않고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지만 결코 동포청년들과 원수가 되어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

전체 조선청년들이여!

미국과 핵근혜적패당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과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무서운 철퇴를 안기자!

남조선청년들은 외세가 쥐여주는 총대를 잡고 민족을 반역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죄악의 길에 서지 말라.

그렇게 스러지기에는 그대들의 청춘이 너무도 아깝고 그렇게 물어버리기에는 그대들의 꿈과 리상이 너무도 소중한다.

진정 조선청년이라면 조국강토를 수십년동안 불법강점하고 온갖 고통과 불행을 다 강요하며 침략전쟁도 발로 참혹한 민족재난을 몰아오려는 미제침략자들을 향해 정의의 총부리를 돌리라.

남조선을 지구상 유일한 친미천국이 아니라 미제살인마들에게 공포와 죽음을 안기는 가장 무서운 복수의 성지가 되게 하라!

외세와 한편이 되어 군사적도발에 미쳐날뛰며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다못해 오늘은 《짜드》까지 끌어들이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무참히 유린하려는 역적무리들의 만고죄악을 용납치 말라.

그대들에게는 민중의 머리속에 퇴적된 숭미공미사상을 불사르며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의 지평을 열었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지 않는가.

리승만반동 《정권》을 통쾌하게 꺼꾸러뜨린 4.19의 절규와 박정희, 전두환군사파쇼독재 《정권》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긴 영웅적인민항쟁들의 드세찬 함성이 지금도 우리 귀전에 생생하다.

그 영웅한 투쟁의 불길을 남녘의 거리거리에 다시한번 지펴올려 미제와 친미보수패당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라.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관조적 태도는 불의와 타협할줄 모르는 청년들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

분렬된 조국의 운명앞에서 개인의 향락을 추구하고 일신의 영달만을 바라는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용납 못할 죄악이다.

외세없고 전세를 모르며 온 겨레가 하나되어 투쟁을 누리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통일애국의 길에 선혈을 뿌린 선렬들의 넋원을 현실로 꽃피우자!

5. 해외동포청년들이 존엄높은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기여하자!

조국의 운명이자 해외동포청년들의 운명이고 통일조국의 미래이자 그대들의 찬란한 레일이다.

분렬이 지속되고 통일이 지연될수록 해외동포청년들의 마음속상처도 깊어지기마련이며 조국이 수난을 당하면 그대들도 비바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전체 해외동포청년들이여! 단군민족의 후손인 당신들도 조국통일성전의 한참호에 선 당당한 선봉사임을 잊지 말라!

용솨음치는 젊음을 애국열, 통일열, 투쟁열로 불태우며 조국통일운동의 익측전역을 힘있게 떠메고나가자!

몸은 비록 멀리 떠나 이역에 살고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에 두고 자기 민족, 자기 겨레와 뜻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여야 한다.

해외동포청년조직의 힘은 단결의 힘, 련대의 힘이다.

조국이 분렬되어있다고 하여 해외에서 살고있는 조선청년들까지 서로 적대하고 반목질시하는것은 수치이며 불행이다.

북과 남으로 편을 가르며 담을 쌓을것이 아니라 조선청년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단결하자!

해외의 각계층 청년조직들이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대의를 앞에 놓고 굳게 손잡고 힘을 합쳐나가자!

북남관계가 극도로 격화되어있고 남조선보수패당이 북과 남, 해외의 련대연합에 차단봉을 내리우고있는 오늘 해외동포청년조직들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한다.

해외동포청년조직들은 주동적이고 창의적인 발기와 노력으로 통일애국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청년들을 이어주고 련대연합을 더욱 활력있게 추동하자.

(6면으로 계속)

저주로운 미제의 남조선강점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새 아침을 안아오자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해내의 전체 조선동포들!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들끓던 해방의 환희와 새 조국건설의 열망을 피물은 근화발로 짓밟아버리며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어느덧 71년이 되었다.

《해방자》의 탈은 벗겨진지 오래고 《보호》의 보자기로 감췄던 구린내나는 정체도 이미 만천하에 드러날대로 드러났다.

하건만 뻔뻔스러운 강점자들은 지금도 우리 겨레의 면전에서 이 땅에 대한 침략과 지배의 발톱을 더 깊숙이 박으려 하고있다.

세기와 년대를 이어가며 민족분열을 강요하고 온갖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들쭉거리고 만고죄악도 모자라 오늘은 《싸드》라는 괴물까지 남조선 땅에 끌어들이며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무고한 우리 겨레를 죽음의 핵전쟁터로 내몰고있는것이 다름아닌 미제침략자들이다.

철천지원수 미제에 대한 겨레의 저주와 증오가 하늘에 사무치고 반미자주의 열기던 함성이 온 강토에 메아리치고있는 이 시각 나라의 통일독립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돌아켜보면 일장기를 내리운 자리에 성조기를 울리며 미제침략자들이 남녘의 거리거리로 활개쳐 쓸어들 때 우리 겨레는 그 치명적인 지배 밑에서 일제강점기의 거의 두배나 되는 오랜 세월을 분열과 전쟁, 고통과 수난, 재난과 치욕속에 보내게 될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오래전부터 고대하여온 세계제패 야망실현의 교두보로 조선반도에 눈을 들었던 아메리카식민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는 와중에 국제사회의 보편적법규나 우리 민족의 의사는 아랑곳없이 우리 강토를 제멋대로 동강내었으며 그 절반땅을 총 한방 쏘지 않고 무작정 강점하였다.

이 지구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과 같은 황당무계하고 후안무치하며 불법무법의 날강도짓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 하나의 피줄을 둘로 갈라놓고 수십년 세월 남조선을 타고앉아 실질적인 지배자로 군림해왔지만 그를 명색상이

나마 뒤받침할 단 한장의 문서장도, 한구절의 협약도 없었다는것이 바로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의 진상이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여년의 력사는 타민족, 타국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강탈하고 말살하며 그 대가로 숨쉬고 살찌운 미국의 흉악무도한 정체를 날날이 고발해준다.

극도의 오만성과 야수적본성, 식민지배자의 파렴치성과 철면피성이 체질화된 미제살인귀들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그 얼마이며 당해온 불행과 고통의 끝은 어디인가.

력사에 기록된 제주도과 로고리에서 의 민간인대학살과 동두천녀인살사건, 윤금이살해사건, 신효순, 심미선학살사건을 비롯하여 온 민족과 세상을 경악케 한 치명적인 악행들은 미제침략군의 야수성과 잔인성, 횡포성을 고발하는 단편적인 사실들에 불과하다.

전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북침의 도화에 불을 달고 이 땅을 재더미로 만든것도, 정전이후 수십년동안 끊임없는 군사적도발과 대결책동에 매달리며 평화와 안정을 무참히 파괴 유린한것도 다름아닌 미제침략자들이다.

미제는 잘 길들여진 총건들을 부단히 양성하고 교체하면서 남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와 대결, 침략과 압살책동으로 친미노복들을 떠밀며 민족통일의 앞길을 인위적으로 가로막고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얼룩진 모든 재난과 고통의 화근이고 침략과 전쟁의 대명사이며 불의와 악의 상징이다.

과연 언제까지 남조선에서 미제 살인귀들의 무도불측한 횡포와 살판치는 전횡을 용납하며 치욕스러운 민족수난의 비극을 이어가야 하겠는가.

지난 70여년의 참담한 수난사가 아직도 부추하며 이 땅을 적신 피와 눈물이 정녕코 모자란단 말인가.

우리는 아메리카야만들이 감히 견줄수도 없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뛰어난 슬기와 재

능을 지닌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문명한 민족이다.

더우기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강대한 힘은 하늘에 닿았으며 마음만 먹으면 넘지 못할 장벽이 없고 이루지 못할 기적이 없다.

세계는 지금 운명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조선민족이 미국이라는 불청객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어떻게 청산하고 자기 앞길을 과연 어떻게 열어가는가를 분분초초 주시하고있다.

수치스럽게도 70년을 넘긴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사를 끝장내야 할 력사의 시각은 왔으며 자주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떠나 우리의 민족적자존심도, 명예도, 미래도 결코 말할수 없다.

해내의 조선동포들!
자기 운명에 대한 비상한 자각과 책임감을 안고 가슴스러운 의세와 단호히 결별하며 민족자주의 새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자!

인류력사에 제국주의침략세력이 지배와 예속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주권을 선사한 때는 일찌기 없었으며 날로 로골화되는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기도는 미제의 침략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것임을 확증해주고있다.

쌍이고 맺힌 원한과 분노를 총폭발시켜 미제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고 나라와 민족의 완전해방을 이룩하자!

그대들의 심장속에 조선민족의 피가 흐른다면,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정의의 성전에 몸바쳐 싸운 애국전통의 불씨가 살아있다면 오늘의 반미성전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민족의 자주권은 저절로 성취되거나 그 누구의 도움으로 얻어지는것이 아니다.

이 시각도 성주군과 김천시는 물론 남조선전역에서 타오르는 《싸드》배치반대투쟁의 초불을 보는가, 노호하는 반미의 함성을 듣는가.

이것은 미국의 전횡과 지배야욕을 더이상 용납치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단호한 의지이며 미국을 향해 터치는 우리 민족의 준렬한 웨침이다.

제아무리 강권을 휘두르며 오만

무례하게 날뛰는 악의 제국일지라도 하나로 뭉친 겨레의 힘은 당할수 없다.

침략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것이 각성된 인민의 힘, 단결된 인민의 위력이다.

《싸드》배치반대투쟁의 초불을 거세찬 반미항쟁의 해불로 더 높이 추켜들라!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면 침략자는 동북아시아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대양을 건너야 아시아대륙에 닿을수 있고 조선반도에 발을 붙여야만 광활한 아시아대륙을 타고앉을수 있는 미국이다.

미행정부가 우리의 거듭되는 평화제안에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강행과 핵무력증강으로 대답해나서면서 정세를 극단적으로 끌고가는 근본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남침위협》과 《안보》의 구실 밑에 쉬임없이 감행되는 북침전쟁연습은 이 땅을 핵전쟁도발의 진원지로 만들기 위한 흉계의 산물이며 끊임없는 무력증강책동은 조선반도를 대륙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결마당으로 만들자는데 있다.

미제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과 군사력증강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온 민족이 총결기해나서자!

미제에 대한 환상과 숭배는 자주 의식을 좁히고 민족의 자멸을 부르는 독배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한줌도 못되는 친미시대매국노들은 미제침략자들에게 아부굴종하여 민족의 리익과 안전을 깡그리 희생시키며 더러운 명줄을 이어가려 발광하고있다.

그 앞장에 선 투등시대매국노가 바로 박근혜역죄배당이다.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적대감과 심술에 썰대로 썰어있는 박근혜당은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발전상과 위력앞에 완전히 눈이 뒤집혀 미제 침략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는 추악한 망동도 서슴지 않고있다.

미국에 기생하고 그 침략정책에 동조하여 살길을 찾는 시대매국노들은 더이상 이 땅에서 머리를 숨힐

자리가 없다.

미국의 식민지명예를 명줄처럼 여기며 미제침략군을 하내비처럼 섬기는 매국역적들을 온 겨레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하자!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을 비호두둔하며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괴뢰역적패당을 민족의 역센 무쇠주먹으로 짓몽개버리자!

우리 민족의 건전한 사고와 의식을 마비시키는 사대매국, 외세굴종 사상과 단호히 결별하고 통일과 민족번영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열어 나가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철수는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와 주변나라들의 절박한 관심사이며 초미의 정치적과제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력량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조선민족의 반미반전투쟁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정의의 성전을 적극 지지성원해나서야 한다.

미국은 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위한 그 어떤 명분이나 구실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천만대적도 타승할 무진막강한 힘을 갖춘 우리 혁명무력의 첫번째 과녁은 수십년동안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탈하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해온 침략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며 멸적의 보복성전에서 자비란 있을수 없다.

노호하는 징벌의 불벼락속에 통채로 타죽겠는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제발로 물러나 명예와 목숨을 부지하겠는가.

미제침략군부리들이 제2의 조선전쟁에서 군페마저 없는 유골이 되어 수세기를 방황하지 않으려거든 오늘의 중대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며 최후의 승리는 조선민족의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주제 105(2016)년 9월 7일

평 양

(5면에서 계속)

친미보수세력의 극렬한 탄압광풍에도 굴함없이 통일애국투쟁에 매진하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을 성심성의로 지지성원하자.

동포청년들이 살고있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현대성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려나오게 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하는 애국이다.

사랑하는 조국의 령성번영과 통일을 위하여 기울인 깨끗하고 헌신적인 노력은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통일조국의 력사속에 소중히 살아있을것이다.

조국의 더 좋은 래일, 더 황홀한 미래를 바라다면 누구나 사회주의강국건설과 통일위업실현에 특색있게 기여하라!

전체 조선청년들이여!

오늘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찬 시대, 불길처럼 타오르는 젊음

과 용솨음치는 힘을 다 바쳐 통일조국의 큰집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격동의 시대에 살고있는 청년들이다.

분렬의 장벽이 아무리 높고 대결의 광풍이 제아무리 사나와도 위대한 민족적영웅이신 불세출의 령장께서 이끄시는 자주적통일대오는 원수들을 경악케 하며 기세드높이 전진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청년들은 약동하는 청년의 기상과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켜 통일청년강국을 일떠세우는 성스러운 대오의 기수가 되고 투쟁의 전위가 되자!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참신하고 활력있게 추동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 계층 청년단체들과 청년들이 참가하는 조선청년통일대회합을 가지자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주제 105(2016)년 9월 7일

평 양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민족대회합의 대문도 우리 청년들이 먼저 열어야 한다.

민족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전체 조선청년들이 떨쳐나선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으며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도 확정적이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청년들이 백두령장의 애국의 호소에 화답하여 통일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다 바쳐 통일의 대통로를 맨 앞장에서 열어나갈것을 다시 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통일된 조국은 우리 전체 조선청년들의것이다.

통일청년강국의 광활한 래일을 향하여 조선청년들 앞으로!

슬기롭고 용맹한 영웅적조선청년 만세!

얼마전 남조선통일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통일 및 대북정책관련여론》을 조사한 결과가 여론의 주목을 끌고있다. 그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고 한다. 또 북남관계개선을 통일준비의 최우선과제로 꼽은 응답자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북을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한 응답자는 전번 조사에 비해 많이 줄어드는 등 북남관계개선을 기대하는 민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진것으로 나타났다.

민심은 이러한데 남조선의 통일부가 그에 역행하여 동족대결의 추태를 계속 부리고있는것이 문제이다.

통일부 장관 홍용표는 중앙아시아나라에까지 날아가 《북이 진정한 변화를 보일 때까지 압박과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재를 구

결했다.

이것도 부족하여 통일부는 4일부서는 《북인권법시행》을 계기로 《북인권재단》구성이니, 《북인권기록센터》설치니 뭐니 하며 동족대결소동의 앞장에서 날치고있다. 심지어 미국상정의 분을 따서 《대북인권제명단》이라는것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는 녀 두리까지 늘어놓았다.

간판에는 《통일》이라고 써붙이 고서도 하는것은 그와 정반대되는 동족대결추태만 부리고있으니 야당 《국회》의원들이 간판을 《분단부》로 바꾸라고 야유조소한것도 무리가 아니다.

민심에 역행하여 청와대의 동족대결지침만 계속 따르다가는 온 겨레의 더욱 큰 저주와 배격속에 통일부자체가 송두리채 없어지게 될것이다.

김진혁

민심의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통일부

얼마전 공화국에서는 조선반도유사시 태평양작전 지대안에 있는 미군의 침략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 로켓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 실전배치된 성능개량된 탄도로켓의 비행안정성과 유도명중성을 비롯한 신뢰성을 재검열하고 화성포병부대들의 실전능력을 판정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화성포

병부대의 로켓실전운영 능력과 탄도로켓들의 전투적 성능이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을 통하여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침략자들에게 무서운 선제타격을 가할수 있는 강력한 군종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군사적위력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경거방동은 자멸의 길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번 탄도로켓발사소식을 들으면서 온 겨레가 그 어떤 대적도 손아귀에 틀어

취고 움쩍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정의의 군대를 가진 커다란 자부와 긍지에 넘쳐있다. 평화를 바라는 진보적인류도 막강한 핵전쟁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화국의 위력에 놀라움과 경탄을 보내고있다. 그런데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조치에 불이 부어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자들이 있다.

공화국이 성공적인 전략잠수함 수중탄도탄의 발사를 비롯하여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취할 때뿐 아니라 지어 우주의 평화적개발을 위한 인공위성발사도 그 무슨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라고 오도하며 시비질에 열을 올린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리비아 등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벌어진 사례는 미국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이 떠드는 그 무슨 《위협》이란 그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구실이고 또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으면 나라와 민족이 망국노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란 무하는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은 자체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그 누가 남의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조치들을 그 무슨 《위협》으로 우롱하며 어제 보러하지만 공화국은 그것을 지나가는 개소리만큼 도 여기지 않는다.

공화국은 자기의 존엄,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핵전쟁억제력강화조치를 그 누구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면서 하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공화국적대행위에 열을 올릴수록 그에 따른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될것이 자명하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다계단으로 일어나는 공화국의 핵무력강화의 기적적인 성과들을 두고 시비중상하며 분별없이 날뛰는것이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자속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구결병

알려진것처럼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국제회의에 참가한다며 해외를 나돌았다. 밖에만 나가면 동족을 핍박는 본성을 또 드러내며 주절댄것이 《북핵, 미싸일》 그리고 《인권》 문제이다. 공화국의 연속적, 다발적군사적공세에 얼마나 열혼이 빠졌는지 그 무슨 《북핵, 미싸일》을 걸고 《싸드》배치를 눈감아달라고 애걸하기도 했다. 가소로운것은 자기의 좁은 어깨에 남조선인민의 운명이 실려있다고 동정을 사보려고도 했고 《전투복》 또 주변국들을 얼러넘겨보려고 《조선부(싸드) 배치》라는 잔피를 부려보기도 하였다. 당치도 않고 들을 나위도 없는 푸념을 너무 종알거리다가 주변국들의 랭스

와 면박만 받았다고 한다. 주변국들에 제 말이 먹어들어가지 않자 거기에 날아온 미일상전들의 《지》, 《공조》를 다시한번 확인하느라 의자가 축축해질 때까지 머리를 맞대기도 하였다. 그렇게 해외나들이 전기간을 동정과 구결로 굶고 있는 또 자화자찬이었다. 《성과가 있었다》느니, 《동맹의지를 재확인했다》느니 하고 말이다. 아침 까마귀 저녁이라고 달라질수 없듯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계속 소리뿐이고 내뉘는 걸음마다 구결질이다. 박근혜의 구결병도 최악의 난치성이다. 그럴수밖에 없다. 외세에 구결을 안하고는 권력의 자리도 못따, 유지도 못해, 종말도 편치 않을테니 말이다. 경제를 살린다며 외자구결, 해외일자리만 만든다며 시장구결이다. 칠면조처럼 하루에도

웃을 몇번이나 바꾸면서 웃음도 팔고 아양도 떨며 구결질이다. 동족대결을 위해 미국에, 일본에, 서방세계에 구결질하는것은 레상사다. 역대 남조선의 보수통치배들치고 외세에 매달리지 않은자가 없지만 천하가 좁다하게 돌아치며 구결의 치마바람을 일으키는 박근혜와는 대비할수 없을것이다. 민족적존엄은 고사하고 인간, 여성으로서의 체면도 인격도 모르는 구결할범이 되고말았다. 평범한 할머니로 서울종로구의 광화문광장에서 동양했다라면 차라리 못사람들의 동정이라도 받았을텐데 말이다. 누구도 아닌 동족과 한사코 해보겠다고 대결약너로, 구결판서가 된 박근혜, 고칠수 없는 동족대결, 사대구결병을 더이상 남조선에 퍼뜨리지 못하게 한사바베 들어내야 할것이다. 신기복

얼마전 남조선 《CBS》 방송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호하는 당국의 처사를 비난하였다. 방송은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를 감싸주고있으며 이것은 검찰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실지로 검찰이 민정수

부정부패범죄자를 싸고도는 당국을 비난

석비서관 우병우의 집을 처음부터 압수수색대상에서 제외했고 그의 처가견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마치못해 하였다고 방송은 까밝혔다. 방송은 더우기 참고인으로 나서게 된 기자의 손

전화기를 압수한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수사권의 탐용이라고 비난하였다. 여기에 각종 부패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정수석비서관이 장관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옷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있

다고 하면서 오죽했으면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우병우문제를 꾸짖으며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표현했는가고 방송은 개탄하였다. 방송은 《국회》의장의

이 쓴소리는 우병우를 감싸고도는 박근혜를 직접 겨냥한것으로 해석되면서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등 정치적파장도 뒤따르고있다고 평하였다. 민심을 거스르는 권력은 성공할수 없으며 민심도 등을 돌리고마는것이라고 방송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속담에 《처녀가 늙어가면 산으로 망썩지고 오른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가 해대는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시집도 못 가고 아이도 못 낳아본 로치너일지라 피벽놀이 있다는데 대해선 다소나마 리해를 한다 쳐도 하는것이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는가싶다. 박근혜의 수많은 피벽증가운데서도 제일 놀라운것이 남자집착증이다. 혼자 사는 로치너가 남자를 그리워할수 있다싶겠다. 밤이면 밤마다 남들 다 끼고 자는 서방없이 홀로 허벅지를 쥐어뜯으며 밀려드는 외로움을 달래야 하는 그 심기, 낮이면 낫다며 《환관》들속에서 끼여 다망한 《국사》를 돌보아야 하는 그 괴로움...

청와대 로치너의 괴벽한 집착증

의원조차 《윤창중임명은 분명 잘못되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한다. 친정체제가 강화되면 잘못된것을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게 된다.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은 48%의 국민이 엄연히 지켜보고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었다. 허나 박근혜의 괴벽한 집착증은 야권과 언론에서 거센 비판이 나올것이 불보듯 뻔한 윤창중을 끝끝내 청와대 안방으로 끌어들이고 야말았다. 윤창중은 미국에서 인턴직원녀성을 성추행한것으로 녀주인의 《은혜》를 토크했기 같았다. 시들어 말라버린 사과와도 같은 쪼글쪼글한 주름살이 가득한 로치너에게서 푸른 기와집의 집사 자리를 받고보니 아마 싫증이 들었는지 얼마 안가 탄장을 본것이다.

그 다음남자는 정윤희다. 아니, 다음남자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쪽박근혜의 남자일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때 붙어다녔던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박근혜를 청와대라는 권력기구가 모르고있었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몰아낼 당시에는 10년전 자료까지도 확보했던 권력기구가 아직까지도 그 행적을 모른다는 것은 이남에서 아직도 수

다는 내용을 소개하고있으며 풍문속 남자로 정윤희를 명시하고있다.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의 남자로 알려진 정윤희는 7년동안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였으며 박근혜의 평양방문에도 동행했다. 정윤희는 최태민의 딸 최순실과 최근 들어 리혼을 했으며 리혼조건의 과거 정치적사건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킨다는것이다.》

이 남정계에서는 정윤희를 가리켜 《박근혜의 그림자》라고 한다. 2004년 이래 박근혜의 비서실장에서 자취를 감춘 후 그녀에게는 어떤 공식직함도 없었다. 정계에서 그를 본 사람에게는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기사가, 일본 《산케이신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객석침몰당할, 행방불명, 만나 두손을 맞잡고 우리 두 사람의 이름에 《축복》이란 뜻을 가진 단어를 공통적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남의 야당들과 각계는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우병우 사퇴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무수한 저항과 비난에도 흔들리면 안된다.》느니, 《비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키라느니 뭐니 하며 우병우를 감싸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가 우병우를 해임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박근혜로서는 뭔가 이 사람을 내칠수 없는 약점이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민심이 아무리 나빠지고 《지지부진》이 곤두박질해도 개의치 않고 시종 감싸고돌며 우병우를 못버리는 그 집착증, 거기에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끈적끈적한 그 무엇도 자리잡고있으리라.

이름과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같이 초이며 범죄자라는 사실은 민심을 꿰개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의 태도이다. 제편을 들어주려라고 생각했던 특별감찰관이 등을 돌려대고 우병우 범죄사건을 검찰에 의뢰하지 박근혜는 특별감찰관에게 사퇴압력을 가하고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보수시민단체를 내세워 법에 고소하는 놀음까지 벌였다.

그러나 그런 일에서 체면도, 수치도 모르는 로치너가 박근혜이다. 《박근혜의 남자》 하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것이 윤창중이다. 이남인론들에 의하면 윤창중은 박근혜와 오래전부터 교감해왔다고 한다. 2009년 어느날에는 박근혜와 식당에서 1시간 40분 정도 단둘이 만났다고 윤창중 자신이 자랑을 늘어놓아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이러한 윤창중을 청와대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친박계 3선의 한

윤창중이 기자회견장에서 몹시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름 석자를 걸고 자기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많은 녀성들이 보인 반응은 《미국에 가서도 저 지경인데 그동안 박근혜와 오래전부터 교감해왔다고 한다.》였다. 하긴 윤창중으로선 억울할수도 있겠다. 아무리 늙다리 로치너라 할지라도 그동안 쌓아온 정이 있었겠는데 대양 건너 미국땅까지 가서 오바마와 만나 두손을 맞잡고 우리 두 사람의 이름에 《축복》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갔다

2014년 4월 16일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의문은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있다. 그 후막속의 주인공이 정윤희라는데 대해 남조선항간에서는 거의 정설로 굳어져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에는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기사가, 일본 《산케이신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객석침몰당할, 행방불명, 만나 두손을 맞잡고 우리 두 사람의 이름에 《축복》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갔다

2014년 4월 16일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의문은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있다. 그 후막속의 주인공이 정윤희라는데 대해 남조선항간에서는 거의 정설로 굳어져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에는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기사가, 일본 《산케이신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객석침몰당할, 행방불명, 만나 두손을 맞잡고 우리 두 사람의 이름에 《축복》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갔다

이름과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같이 초이며 범죄자라는 사실은 민심을 꿰개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의 태도이다. 제편을 들어주려라고 생각했던 특별감찰관이 등을 돌려대고 우병우 범죄사건을 검찰에 의뢰하지 박근혜는 특별감찰관에게 사퇴압력을 가하고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보수시민단체를 내세워 법에 고소하는 놀음까지 벌였다.

이름과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같이 초이며 범죄자라는 사실은 민심을 꿰개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의 태도이다. 제편을 들어주려라고 생각했던 특별감찰관이 등을 돌려대고 우병우 범죄사건을 검찰에 의뢰하지 박근혜는 특별감찰관에게 사퇴압력을 가하고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보수시민단체를 내세워 법에 고소하는 놀음까지 벌였다.

이름과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같이 초이며 범죄자라는 사실은 민심을 꿰개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의 태도이다. 제편을 들어주려라고 생각했던 특별감찰관이 등을 돌려대고 우병우 범죄사건을 검찰에 의뢰하지 박근혜는 특별감찰관에게 사퇴압력을 가하고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보수시민단체를 내세워 법에 고소하는 놀음까지 벌였다.

재오스트리아동포 김숙경

서론

한심한 《지지률》이 너희 인권얼굴

남조선에서 집권자인 박근혜는 찍하면 《북인권법》 타령을 늘어놓고 있다. 지난 4일부터는 동족대결의 악법인 《북인권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제 얼굴을 보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인권》에 그토록 관심이 많은 박근혜의 인권지수, 그가 만들어 놓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상은 과연 어떠한가. 구구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의 끈두박질하는 《지지률》 하나에도 그것이 다 썩여있으니까.

《박 (대통령) 지지도 다시 취임후 최저치로》

남조선의 《국민일보》가 5일에 전한 박근혜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1%로 다시 취임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면에 《국정수행을 잘못하고있다.》는 부정평가는 60%로 잘하고있다는 응답자들의 평가보다 2배나 더 많았다. 이것은 남조선의 절대다수 민

심이 박근혜를 배격하고 찍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있다는 반증자료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왜 집권자를 그토록 불신하고 타매하고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민의에 역행하고 민생을 해치는 악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남조선의 인권실태는 박근혜가 집권한 이후 더욱 처참해졌다. 집권자의 비위에 거슬러는 말 한마디 해도 《중복》으로 불리고 언론사가 폐간되고 민의를 반영하여 발족한 당도 마구 해산당하는것이 지금의 살벌한 남조선정치현실이다. 생존권을 요구하여 시위와 집회를 해도 경찰의 탄압을 당하고 물대포에 얻어맞아 실신당하는가 하면 수백명의 아이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여놓고도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을 한사코 가로막고있는 집권세력이다. 물가는 나날이 치솟고 노동자들은 무리로 해고당하고 그래서

파업과 시위가 없는 날이 없다. 자살자가 늘어나고 청년들은 삶을 포기하는 《삶포세대》로 전락했다.

이것이 다 뉘 탓인가. 집권자를 잘못 만나고 정치와 사회를 잘못 만난 탓이다. 독재자가 인민우에 군림하고 악정이 실시되는 곳에서는 참다운 인권이 꽃피날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률》도, 여당의 《지지률》도 바닷속 해마에 상태에서 도대체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한심한 《대통령지지률》, 이것은 세계최악의 인권지옥인 남조선사회와 썩은 정치에 대한 민심의 고발이고 준렬한 단죄이다.

남조선에 이런 처참한 인권사각지대, 인권폐허지대로 만들어 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고 있는 인권유린의 악마가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까마귀가 백로 홍보는 격이라 해야 할것이다.

현상철

항거의 물결이 칸여미기가 가까워진

지난 7월 성주군에 《싸드》를 배치할데 대한 결정이 발표된 때로부터 중단없이 이어져온 남조선 각계층의 《싸드》 반대투쟁은 날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싸드》 배치결정이 발표된 13일부터 성주군청앞에서 50여일째 하루도 번짐없이 대중적인 초불집회를 벌리고있다.

가뜩이나 통치위기에 시달리는데다 《싸드》 배치투쟁으로 당황해난 보수집권세력은 인민들의 투쟁을 분열, 약화시키기 위해 《빨갱이》라느니,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느니 하면서 탄압의 칼을 들이대는 한편 최근에는 이미 발표된 곳과는 다른 성주군내 3곳을 《싸드》 배치 제3후보지로 여론화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패권주의적야망실현을 위해 침략전쟁장비를 성주군에 함부로 배치하기로 한 미국과 집권세력에 대한 군주민들과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싸드》 배치저지투쟁

위원회를 뚫고 조직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는 성주군 주민들은 조선반도에 전혀 필요없는 《싸드》가 성주에 배치되지 못하게 하는것이야말로 우리의 역사적 책무이다. 《싸드》철폐투쟁은 제2의 독립항쟁 운동이라고 하면서 역적패당의 온갖 모략과 탄압책동에 단합된 힘으로 맞서고있다.

이들의 과감한 투쟁은 1만명결의대회, 대규모사발시위, 서울에서의 항의행동, 다른 지역 인민들과의 공동투쟁 등 다양한 형태로 장기화, 적극화되고있다.

8월 18일 민주로총,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녀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0개 단체가 《싸드》 배치저지전국행동을 결성하는데 이어 8월 26일에는 서울과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를 비롯한 남조선 58개 지역에서 일제히 《싸드》 배치반대초불투쟁이 전개되는 등 성주군 주민들이 지휘 《싸드》 반대투쟁의 초불은 온 남녘땅에 거세찬 불길로 타번지고있다.

지난 8월 31일에는 많은 성주군 주민들과 함께 이들에게 현대성을 표시하기 위해 부산과 경상남도 창원 등지에서 달려온 각계층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싸드》 배치를 강행하기 위해 갖은 술책을 다하고 있는 집권세력의 음흉한 기도들을 폭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야당들은 《싸드》 배치반

유인람치범죄를 가리워보려는 비렬한 술책

최근 남조선보수패당이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저들의 비렬하기 그지없는 유인람치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별의별 오그라수를 다 쓰고있다. 중국 의 녀괴에서 람치한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인터뷰》 놀음이 그 대표적사례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4월 남조선정보원깡패들은 너절한 인간쓰레기놈과 짜고 12명에 달하는 애어린 처녀들을 남조선으로 집단유인람치해가는 귀족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는 그들모두가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하였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저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한편 그들을 회유기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정보원패당은 처녀들을 의무와 철저히 격리시켜

놓고 갖은 회유와 위협공갈, 성폭행과 고문 등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악행까지 저질렀다. 또한 북에 있는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재판정에서 처녀들을 만나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요구를 《신변보호》니 뭐니 하는 부당한 구실을 내걸고 악랄하게 가로막았다.

처녀들을 돌려보내라는 공화국의 정당한 요구와 남조선 각계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친 보수패당은 얼마전에는 그들을 사회로 내보냈다는 여론까지 내뿜었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남조선언론들과 각계인사들은 사회로 내보냈다는 처녀들의 흔적조차 찾을수 없다고 하면서 하루빨리 그들을 부모들의 품,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있다.

바빠맞은 보수패당은 지금 추석을 계기로 처녀들을 3~4명씩 조를 묶고 매조의 대표를 내세워 이른바 언론과의 《인터뷰》라는 모략극을 연출하려 하고있다.

정보원패거리들은 매일과 같이 처녀들을 내몰아 《인터뷰》연습을 진행하면서 매번 질문하는 기자와 방청객을 다른 인물들로 바꾸는 방법으로 그들이 진짜 《인터뷰》가 어 느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저들의 비위에 맞는 각본이 완성되면 그것을 그대로 내보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생때같은 자식들과 하루아침에 리별하고 슬픔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부모들의 품으로 처녀들을 돌려보낼 대신 저들의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온갖 비렬한 수를 다 쓰고있는 남조선보수패당이야말로 인두집을 쓴 야수들이다.

하지만 그 어떤 발악적책동도 동족대결광들의 반인륜적범죄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너절하기 그지없는 《인터뷰》 놀음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공화국주민들을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

리어금



《싸드》 배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본사기자 김철진

남조선에서 내외의 우려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4일부터 《북인권법》이 정식 시행되었다고 한다.

천벌을 맞을 동족대결죄악

남조선을 인권불모지로 만든 인권범죄자들이 존엄높은 공화국의 인권을 시아비아야하겠다는 것도 가증스럽지만 인권시궁창에서 허우적이는 까마귀발로 그 누구를 《유도》, 《지원》

한다는것은 역겹기 그지없다. 가련한것은 《북인권법》 시행으로 하여 저들이 어떤 해여날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는가를 모른다는것이다.

의 너울을 쓴 《체제대결법》, 《흡수통일법》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해외의 우리 민족과 공정한 세계여론도 《북인권법》의 제정과 그 발효를 극력 반대하여온것이다.

제2의 《보안법》과 같은 《북인권법》의 조작은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바라는 북남관계개선과 화해, 협력의 통일을 안하겠다는 공언이고 그 시행은 《북붕괴》, 《제도전복》이라는 《흡수통일》의 길로 한사코 가겠다는것이다.

각국의 인사들은 경란을 표시하고 출판보도물들은 지면과 화면을 통해 인민중시,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 대해 널리 소개하고있다.

회복불능의 북남관계

리명박 《정권》때에 질식상태에 처했던 북남관계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완전히 결단난 상태이다.

미국과 야합한 북침핵전쟁연습과 남조선과 그 주변에로의 미군무력의 증강, 미국이 지휘하는 제재에 편승, 미친듯이 벌리는 《중복》소동, 《0》상대의 북남대화... 관계개선의 바늘구멍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인권법》이라는것이 시행에 들어갔다.

《북인권법》은 그자체가 동족의 존엄을 깎아내리고 체제를 허물어보려는 악법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 어느 인민보다 참담고 정의롭고 존엄높은 인권을 누리고있는 공화국의 인민이다.

그 인권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보장하고 체제에 의하여 담보되며 자위적군력으로 지켜진다.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 체제, 자위적군력은 곧 인민의 생존권이며 존엄이다.

남조선당국이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본질에 있어서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버리고 제도를 압살하려는 범죄적인 대결소동이다.

그것을 《북인권법》으로 《법》화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남조선에는 동족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운동을 《범죄》로 몰아가는 극악한 파쇼악법인 《보안법》이 시행하고있다.

《보안법》이 동족과의 전쟁대결을 로골화한 악법이라면 《북인권법》은 《인권》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내외의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에 《북인권법》을 조작한데 이어 이번에 그것을 한사코 발효시켰다.

《북인권법》이 발효되면서 《북인권기록센터》가 《북인권실태》를 《조사》하여 3개월마다 법무부의 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한다고 한다.

그 《기록》은 《통일후 반인권행위의 처벌》을 위한것이라고 한다.

가소롭기 그지없다. 무엇을 《조사》하고 《기록》한단 말인가.

일말전 영국의 한 인사가 공화국을 방문하는 나날에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로 편성한 편집물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그 편집물을 본 서방세계의 반응은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후회였다.

오스트리아신문 《테르 슈탄 다르트》는 《서방언론들의 외곡된 보도와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견해를 완전히 뒤집어놓은 편집물이다. 매일 열람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있다. ...회열과 광만에 넘쳐 즐기는 사람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은 서방언론들이 떠들던 《쇄쇄된 국가, 자유가 없는 나라, 한심한 인권실태, 침울한 도시풍경》이라는 표현과 인식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전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미국의 한 기사는 자기의 글에서 확실히 서방과 미국은 조선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다, 현실적으로 조선을 다녀온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각했던것과 조선에서의 체험이 완전히 다른데 대하여 놀라워하고있다고 피력하였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세계는 미국과 서방세계의 편견과 적대시로 비뚤어지고 외곡되고 날조된 공화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역사의 폐지에 공화국의 참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있다.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의 《인권실상》을 말해준다면 내세운 《증인》이라는자들은 공화국에서 도주한 몇몇 배신자, 변절자, 타락분자들이었고 그자들의 《증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맺은 돈 거래를 위하여 저들이 불려준 자본을 출연하게 한것이라는것은 내외에 잘 알려져있다.

본사기자 김정혁